시방세계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조흥은행 189-13-03929-3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 협 069-01-238223
예금주 불교방송

◇발우. 사찰의 모든 큰방에는 키낮는 곳점에 발우를 올려 놓는 선반이 만들어져 있다.

◇발우공양 하기 전 게송을 외우는 모습. 수식게(受食偈)를 외울때는 양손으로 어시발우(밥그릇)를 잡아 이마 높이로 올리고 게송을 읊는다.

'밥먹는 일'도 수행

발우공양

절약과 공생 배운다

◇발우공양 시작. 죽비 소리로 시작하여 천수, 밥, 국 등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 나름대로 엄한 법도가 있다.

사찰 경내의 큰 방에서 한 번의 죽비 소리와 함께 '계공다소 양피래처(計功多小 量彼來處) …'라는 게송이 들리면, 이는 분명 스님들이 발우공양을 시작한 것이다. 발우공양이란 스님들의 식사를 말한다. '이 공양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가를 헤아리고 …'라는 이 게송의 뜻만 큼이나 스님들의 공양법은 일반 사람들의 식사와는 다르다. 출가 수행자에게는 '밥 먹는 일'도 수행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행자가 음식을 매개로 중생과 함께하는 자비의 정신이 숨겨져 있다. 예배·감사·반성·자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정신은 공양 예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소심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경전에 따르면 발우공양은 모든 중생의 노고와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의 수행에 대해 반성하고 발원하는 마음의 점검이며, 모든 중생과 함께 평등히 나누어 먹겠다는 자비심의 표현 그 자체다.

세간에서는 음식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을 환경친화적 식사법이라고 극찬하고 있지만, 공양을 하는 수행자의 마음과 발우의 쓰임새를 안다면 결코 놀랍지 않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놀랄 일은 포식과 포만을 너무도 당연시하는 세간의 음식 문화다.

발우란 '발다라'의 중국어 음차로 '양에 알맞은 그릇'을 뜻한다. '스님은 옷 세 벌과 발우 한 벌(三衣一鉢)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행자는 한 벌의 발우를 평생 지니고 다니고 또 전법자에게 전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발우공양에는 찬그릇·청수그릇·국그릇·밥그릇 등 모두 네 개의 발우가 사용된다.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은 한 개의 발우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걸식하여 공양했지만 차츰 공양 횟수와 발우 수 등이 늘어났다. 아침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해 우는 라훌라에게 미음을 먹게 했던 것이 아침공양으로, 또 병자들을 위해 '약석'이라는 이름으로 허가했던 식사는 저녁공양으로 각각 자리잡았다. 발우 수도 걸식 공양에서 절에서 밥을 지어먹는 형태로 바뀌면서 네 개로 늘어났다.

발우공양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어 현재에 이르렀지만 그 본질적인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큰스님부터 갓 출가한 행자까지 같은 반찬과 같은 밥을 먹는 데서는 평등의 정신을 찾을 수 있고, 또 숭늉과 김치 조각으로 발우를 깨끗이 닦아낸 뒤 찌꺼기 하나까지 알뜰히 먹는 과정에서는 절약정신을 찾을 수 있고, 찬이 모자라면 서로 반찬을 덜어 모자란 사람과 나누며, 공양을 마친 후 대중공사를 벌이는 모습에서는 공동체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절약하며, 평등하고, 음식을 먹는 행위가 맛에 탐착하거나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여기는 방편이 발우공양에 짙게 배어 있다.

발우공양은 '준비'에서 '수발게(收鉢偈)'까지 모두 10단계를 거친다.

▲준비=법당에서 예불을 마친 스님들은 장삼을 입은 채로 밥·국·찬통 등이 마련된 큰 방으로 가서 각자의 발우를 가지고 정해진 위치에 앉은 채 입승스님의 공양을 알리는 죽비 소리를 기다린다. 밥·국통은 약 1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며, 반찬은 네 가지로 준비된다.

▲회발게(回鉢偈) 및 전발게(展鉢偈)=죽비 소리와 함께 스님들은 발우를 앞에 두고 부처님의 일생을 상념하는 회발게를 송(誦)하고, 자기 앞에 가지런히 발우를 펴면서 공양하는 사람, 공양받는 사람, 공양물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전발게를 송한다.

▲십념(十念)과 진지(進止)=대중스님들이 발우 펴기를 마치면 입승스님은 한 번씩 치는 죽비에 맞추어 십념을 염송하고, 이어 법랍이 낮은 스님들이 일어나 진지를 시작한다. 이때 밥은 진지를 맡은 스님이 임의의 양으로 퍼주는데, 다시 밥통을 들고 돌면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밥과 국을 돌리는 동안 앞에 있는 찬통에서 각자 반찬을 발우에 옮겨 공양할 준비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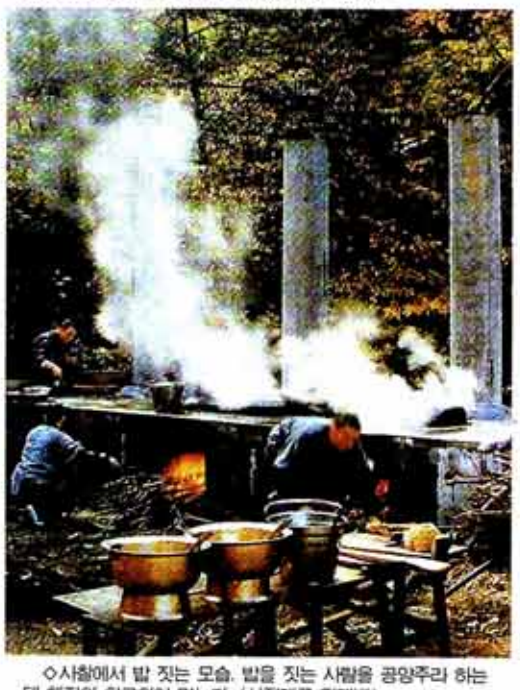
▲수식게(受食偈)와 봉찬 그리고 오관게(五觀偈)=밥을 담은 발우를 두 손에 모두어 이마에 정대하고 수식게를 송하고, 입승스님의 죽비에 다시 발우를 내리고 합장하여 오관게를 송한다.

▲생반게(生飯偈)와 헌식(獻食)=오관게가 끝나 죽비를 한 번 치면 각자 자기의 공양 중 3~7알의 밥알을 떼어 손바닥에 놓고 생반게를 읊고, 헌식기(獻食器)를 돌려 손바닥 위의 생반을 모두 모아 밖으로 보낸다. 이것은 시방의 귀신들과 함께 공양한다는 뜻이다.

▲공양=생반게송이 끝나고 죽비를 세 번 치면 비로소 공양을 시작한다. 이때 음식 먹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데, 이귀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면 기갈이 더욱 심해지고 욕망의 불이 붙어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또 일체 말을 하지 않는데, 음식 먹는 일이 배달음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임을 생각하고 공양에 대한 고마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허리를 숙여 입을 발우 가까이 해서는 안되고 발우를 들어 입 가까이에 가져와야 한다. 대중스님들의 공양이 끝날 때 쯤 되어서 입승스님은 죽비를 두 번 치는데, 이때 몇 명이 일어나 준비된 숭늉을 들고 들어와 윗 스님부터 차례로 따른다. 숭늉을 받은 스님은 남은 김치 조각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자신의 어시발우와 국발우 그리고 찬발우를 잘 닦은 후 모두 마신다.

▲천수물 돌리기와 발우 씻기=숭늉을 모두 마시면 발우를 씻기 위해 천수물을 돌린다. 천수물은 미지근한 온도인데, 차가우면 발우 씻기가 어렵고 또 뜨거우면 물을 버릴 때 땅 속의 미물들이 상하기 때문이다. 발우 씻은 물이 양동이에 모아져 어간에 가지런히 모이면 방장 스님은 천수물이 깨끗한가를 살핀다. 이 물을 천수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장에 붙여놓은 천수다라니가 이 물에 비치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절수게(絶水偈)=발우의 천수물을 천수물통에 모으면서 각자 자신의 발우를 다시 싼다. 입승스님이 죽비를 한 번 치면 발우를 싸는 동작을 멈추고 모두 수인을 하고 절수게를 송한다. "발우 씻은 물맛이 하늘의 감로수와 같아서 너희 귀신들에게 주노니 모두 배부를 지어다"라는 뜻이 담긴 진언 '옴 마휴라세 사바하'를 세 번 읊는다.



◇사찰에서 밥 짓는 모습. 밥을 짓는 사람을 공양주라 하는데 행자의 최고참이 맡는다. (사진제공:김대벽)

▲대중공사=절수게가 끝나고 아직 공양을 완전히 마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에게 알릴 말이나, 공개적으로 해야 할 말을 한다. 특히 새로이 방부를 들여 대중 생활을 시작한 스님은 반드시 이때 인사를 한다.

▲수발게=전달사항과 주의사항을 모두 알리고 나면 입승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추어 수발게송을 읊는 것으로 공양을 마친다. 이 게송에는 공양을 마치니 삼세의 영웅들도 제압할 힘이 솟고, 일체중생들이 신통을 얻기를 바란다는 대승사상이 녹아 있다.

이와 같이 발우공양은 '식사'라는 단순한 행위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또 수행으로 승화시킨다. 공양이 단지 맛을 탐닉하는 행위가 아니라 평등, 절약, 감사, 공생, 발원 등 불가의 정신을 튼튼히 하는 수행의 한 부분인 것이다.

글=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두광 주위를 깊게새겨 상반신의 입체감을 부각시킨 충북 음성의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신라말 거구 불상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거구마애불입상이다.

마애불을 찾아서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두광주위 깊게 새겨 상반신 입체감
계단식 옷주름·V자형 옷자락 '특색'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에 있는 이 마애여래 입상은 자연 암벽을 이용하여 불신(佛身)을 고부조하였는데 두광 주위를 감실처럼 깊게 새겨 상반신의 입체감을 부각시켰다. 높은 육계, 부피감있는 네모난 얼굴, 눈 코 입의 처리 등에서 형식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으며 손은 몸에 밀착된 채 오른손은 밑으로 내렸고 왼손은 들어 가슴앞에 댄 모습등에서 당시의 서 있는 불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판적인 신체와 신체의 윤곽을 직선적인 선으로 표현했고 여기에 얇게 빚은 듯한 계단식 옷주름과 V자형의 옷자락 등에서 신라말의 거구 불상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거구의 마애불 입상임을 알게 해준다. 도유형문화재 130호.

글·사진 = 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 금동카드

수맥을 차단하는 동판에 금동스님 달마그림을 얹어 세기 개금 불사 내외 같이 순금 99% 「흰색옷을 입히듯이 개금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망상 함께 마시길 기원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관음도와 지장보살님 카드모양도 제작되었습니다.

달마도-앞면 달마도-뒷면

관음도-앞면

지장도-앞면

※주의 : 그림모양은 같으나 색상은 관음도 와 지장도와 같이 흑이 생깁니다. 흑이 생기면 다시 개금 점안할 수 있습니다

■개금 점안비 : 15,000원

※ 10장 이상 사찰 법보시용은 할인해 드립니다.
※ 전국 어느곳이나 우편배달 가능합니다.
※ 오후 6시까지 접수해 주세요.

동방금은리인
대구은행 : 179-08-084837
우체국 : 7022217-0031235
예금주 : 연화선원

반야원 (053)943-4170

◆달마도 금동 개금 점안 목걸이◆

달마도 메달 관음도 메달 지장도 메달

※ 목걸이 줄은 별도 구입하셔야 됩니다.

용도 : 새천년 새해 소원성취부 안전운행·불안정한 분·건강유지 기획 금동스님 제작·공급처 반야원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